

## 51세 전설 최경주 또 하나의 신화 쓰다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 13연더파  
한국인 첫 챔피언스 투어 우승 쾌거

연도	대회명	비고
1	2002 컴팩 클래식	정규투어
2	탬파베이 클래식	
3	2005 크라이슬러 클래식	
4	2006 크라이슬러 챔피언십	
5	2007 메모리얼 토너먼트	
6	AT&T 내셔널	
7	2008 소니오픈	
8	2011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9	2021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	챔피언스투어

\*통산승수(29승)=코리아투어 16승, 유리피인투어 1승, 일본투어 2승, 아시아투어 1승 포함

'코리아 탱크' 최경주가 27일(한국시간) 한국인 최초로 PGA 챔피언스 투어 정상에 올랐다.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하는 최경주. 사진제공 | 게티 이미지



3R 5,6,7,8번홀 4연속 버디행진  
마침내 PGA 시니어무대까지 정복  
"10년도 넘게 걸린 간절했던 우승  
PGA 첫 우승때와 똑같은 기분"



한국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최경주(51)가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썼다. 미국 프로골프(PGA) 정규 투어 8승으로 아시아 국적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 탱크'가 시니어무대인 챔피언스 투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최경주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총상금 220만 달러·25억9000만 원)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3연더파 203타로 나란히 11연더파를 기록한 벤투하르트 랑거, 알렉스 체카(이상 독일)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상금 33만 달러(3억9000만 원)를 손에 넣었다.

2라운드까지 2타 차 선두였던 최경주는 2번(파5) 홀

에서 첫 버디를 낚은 뒤 5번(파3)~6번(파5)~7번(파3)~8번(파4) 홀에서 4연속 버디 행진을 벌이는 등 무서운 집중력을 과시했다. 14번(파4) 홀에서 이날 유일한 보기가 나왔지만 별다른 위기조차 없을 정도의 여유있는 우승이었다.

챔피언스 투어는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1970년생인 최경주는 지난해부터 챔피언스 투어와 정규 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2018년 갑상선 종양 제거 수술과 허리통증으로 8개월가량 쉬 뒤 재기에 또 다른 화제를 뿌렸던 '볼굴의 주인공'은 지난해 챔피언스투어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내며 마침내 시니어 무대까지 정복했다.

1995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팬텀 클래식에서 국내 무대 첫 승을 따낸 최경주는 캘리포니아를 거쳐 2000년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했다. 2년 차인 2001년 톱10에 5차례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한 뒤 2002년 컴팩 클래식에서 역사적인 첫 승을 쟁취했다. 이어 2011년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정규 투어에서 8승을 수확해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최다승 기록을 보유

하고 있다. 올해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6승으로 추격 중이다.

최경주가 PGA 투어 주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10년 4개월 만. 공식 대회 우승은 2012년 10월 코리아투어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약 9년 만이다.

최경주는 "10년도 넘게 걸려 다시 우승했다. 정말 간절히 우승을 다시 하고 싶었다. 매 경기를 땀 때마다 우승을 원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니어 투어에서의 우승도 매우 어렵다. 특히 첫 우승은 더 어렵고, 그래서 더욱 기쁘다. PGA (정규) 투어 첫 우승을 했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라며 "이 코스에서 여러 번 경기했지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나에게 환상적인 대회가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자신이 호스트를 맡은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우승은 더 뜻깊다. 한국 무대에서 통산 16승을 기록 중인 최경주는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30일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에서 개막하는 코리아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 원)에 출전해 국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논란의 대장동 개발사업 배우 박중훈 연루 의혹

대주주 '일상실업' 통해 '엠에스비티' 266억 대여 개발업체 '화천대유' 초기 투자자금으로 사용 의혹  
소속사 "사생활 알지 못해"…박중훈은 연락 안당아



배우 박중훈

배우 박중훈(55)이 '화천대유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박중훈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초기 투자사인 부동산 투자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 특수목적법인인 자산관리회사로, 불과 지분 7%로 404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오른 부동산 투자회사 엠에스비티의 2016~2020년 감사보고서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천대유에 131억원을 빌려줬다. 또 화천대유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 대여해준 315억원과 함께 엠에스비티가 2015년 빌려준 60억원 등을 초기 사업 운영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은 박중훈이 100% 지분을 지닌 부동산 임대업체 일상실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엠에스비티에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엠에스비티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일상실업으로부터 2015년과 2016년 연 12% 이율로 각 20억원과 2017년 54억원 등을 빌렸다. 또 일상실업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통해 250억원을 빌려 2019년 기준 누적 대어액은 266억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엠에스비티는 2017년 11월30일 화천대유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A11BL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당사가 (2015년부터)투자한 사업"이라면서 "2018년 12월 분양을 시작, 100% 분양이 완료"돼 "제3순위 수익권자로서 법적인 차감 전 이익이 약 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 엠에스비티도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자금을 빌려준 일상실업과 박중훈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또 엠에스비티 소재지가 일상실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이며, 일상실업 사무실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박중훈에게 의혹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중훈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이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여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스포츠동아는 이날 박중훈과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 사과(충청남도), 브로콜리(충청남도)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 사과(충청남도), 브로콜리(충청남도), 산사나무열매(충청남도), 매실(충청남도)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검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이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더합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